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제22회 학술발표회

*Ingenius Mulieris*

여성의 천성

일시 : 2019년 11월 7일(목) 10:00 - 17:00

장소 : 광주가톨릭대학교 종합강의실

주최 : 광주가톨릭대학교신학연구소/광주인권평화재단

## 모시는 글

자크 라캉이 즐겨 인용했던  
앙트완 튀달의 시를 고쳐 읽습니다.

여자와 사랑 사이에 / 남자가 있네  
여자와 남자 사이에 / 한 세상 있네  
여자와 세계 사이에 / 어떤 벽 있네

사랑이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뿐 아니라 인간까지  
인간에게 계시하셨습니다(『사목헌장』 22항).  
신학교에서 여성을 질문하는 것은 도발이 아닙니다.  
신학교야말로 여성을 묻는 데 있어 탁월한 장소입니다.

인간에게 하느님은  
여자에게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벽들을 넘어 건너가야 할 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입니다.  
벽들과 세계에 말을 건네야 할 이유입니다.

“여성 없는 교회는 성모님 없는 사도단과 같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말씀에 용기를 냅니다.  
가톨릭 여성들조차 피해 가려고 하는  
‘여성의 천성’을 다시 소환합니다.

평신도 여성 신학자들이 선포하고  
성직자들이 묻는 자리입니다.  
들을 귀를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며  
성심을 다해 초대합니다.

2019년 신량등화(新凉燈火) 시절에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장 김상용 신부

## 일 정

사회: 김영선(수녀, 본 대학교)

- 10:00           개회선언 및 시작기도
- 10:05-10:10   개회사: 김   혁   태(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총장)
- 10:10-10:40   **기조강연: 페미니즘과 인간 존엄성**
  - 발 표 : 장   경 (전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 10:40-11:00   휴 식
- 11:00-12:20   **제1주제 : 성경의 여성들이 보여주는 하느님의 모상성**
  - 발 표 : 강 은 희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 논 평 : 박 문 수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 답 변 및 질 의 응 답
- 12:30-14:00   점 심   및   휴 식
- 14:00-15:20   **2주제 : 에디트 슈타인의 감정이입 여성론:  
‘동반자’(Gefährtin) 개념을 통한 인격의 실현**
  - 발 표 : 이 은 영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 논 평 : 윤 주 현 (신부, 서울가르멜 수도원)
  - 답 변 및 질 의 응 답
- 15:20-15:40   휴 식
- 15:40-17:00   **제3주제 : 교회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여성의 천성과  
그 소명의 위대함에 대하여**
  - 발 표 : 최 진 일 (가톨릭대학교)
  - 논 평 : 박 은 호 (신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 답 변 및 질 의 응 답
- 17:00           폐회선언 및 마침기도



- ☞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 / 개인 컵 지참
- ☞ 참가하신 분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오니 아래 연락처로 접수(11월 1일까지) 바랍니다.

### 연 락 처

광 주 가 톨 릭 대 학 교 신 학 연 구 소

전남 나주시 남평읍 중남길 12-25

전화: 061) 337-2231(직) / 061) 339-2181(직)

팩스: 061) 337-2185